

# 3억원대 교비 횡령한 목포 사학 적발

## 전남도교육청, 총 3억984만원 횡령 드러나

### 이사장 사택관리비 1억원 부당지출 혐의도

전남 목포의 한 사학법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회계처리를 부정적하게 집행해오다 전남도교육청의 특별 조사에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23일부터 목포지역 한 사학법인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여 교비 횡령과 회계 처리 부정적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매점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교비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교비회계에서 일용 인부임금을 허위로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억984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답해야 할 사택관리인 급여와 사택 난방용 유류비 1억5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당직 인력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시설물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비리와 연관이 있는 A학원 산하 2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과면,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행정실장 등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사장이 일용인부의 허위 임금 832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재판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성인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비리행위 관련자들에게 대해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며 “앞으로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이동음란물 유통 두 비디오’

### 손정우, 27일 석방 대신

### 美 송환절차 밟을듯

‘다크웹’의 최대 아동성착취 영상사이트 ‘윌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해 한국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24)에게 법원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만기로 출소가 예정돼 있던 손씨는 석방되지 않고 미국으로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지난주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이 손씨에 대해 청구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아동음란물 광고·수입·배포 등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하면서 한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왔다.

한국과 미국·영국의 수사당국은 폐쇄형 비밀사이트 다크넷(darknet)을 이용해 25만건의 아동성착취물을 유통한 한국인 손씨와 12개국 이용자 337명을 체포·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이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92명, 영국 18명 등이었다.

이 사건으로 손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돼 함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가 된다면 미국에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아동성착취 동영상 1건 다운로드는 사람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이 한국보다 엄청 강하다.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두 달 만에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간 중단됐던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 “온라인 개학 따른 학생들 중식 해결책 마련해야”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편적 교육복지 주저”

### “학부모는 끼니 걱정·농어민은 식자재 공급 막혀 막막”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광주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들의 중식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루하루 학생의 끼니 걱정을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이만저만 아니다”며 “학교 급식이 한 달 이상 중단돼 식자재 공급이 막힌 농·어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PC 보급과 인터넷 설치 등 온라인 개학에 따른 지원이나 교직원들의 지역농산물 구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 재난 상황에서 급식(중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는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원

(복지학교 90여개교)은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복지학교 대상 외 학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의 생활·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학교 무상급식 등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막고,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 지원금으로 전환해 현금 또는 농산물 꾸러미 형식으로 중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강아라 기자

### ● 단신 ●

### 심야에 잠겨 있지 않은 차량 털어온 10대 3명 구속

심야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차를 몰고 달아난 10대 3명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1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 B씨(18)도 광주 북부경찰청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 등 2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치는 등 지난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광주와 전남 여수 등지에서 9차례에 걸쳐 차나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B씨는 지난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A씨와 함께 차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에 자동차공업사나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잠겨있지 않은 차를 골라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7일째 귀가않던 80대, 아파트 지하서 숨진 채 발견

80대 노인이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아파트 A동 지하에 있는 창고 공간에서 노모씨(89)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옆동에 가족과 함께 살던 노씨는 지난 14일 이후 귀가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폐쇄회로(CCTV) 상에는 노씨가 보행기를 밀고 아파트 1층 복도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노씨가 발견된 아파트 주변에서는 보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며,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폭행 보복 흉기 휘두른 20대 외국인 4명 검거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국적이 다른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A씨(23) 등 아제르바이잔 국적 외국인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식당 앞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B씨(22)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허벅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0시쯤 A씨 일행이 B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행이 보복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돈 찾아 우체통에 넣어라”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통장의 돈을 찾아 우체통에 보관하라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20일 말레이시아 보이스피싱 일당 수거책 A씨(20)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충남·전남 등 전국의 고령인에게 전화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인출해 우체통에 보관하라고 속여 11명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우체통 등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를 검거하는 데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기관 직원 B씨 등 2명은 지난 3일 오전 평소 거래를 한 피해자 C씨가 갑자기 고액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C씨 집을 방문했다.

때마침 피해자 돈을 절취한 A씨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인임을 직감하고 A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